

# 장애인차별금지법, 끝까지 투쟁 하겠다



▲ 추운 날씨속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모습

12월 3일(토) 세계장애인의 날, 국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들이 전국투쟁결의대회를 가지고, 이어 장애인 단체 대표자 9명이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굳은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삭발식에 앞서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삭발하기 전 머리카락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장애인에게는 머리카락에조차도 행사할 권리가 없었다며”며 쓸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날 9명의 잘려진 머리카락은 투쟁결의문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20명에게 택배로 전달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 당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연금 제도 도입 등을 내세워 유럽식복지주의적 공약이라 평가 받으며 많은 장애인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축소하고, 이

기 장애인 교육 예산을 80억 삭감하였으며, 매년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확충해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06년 특수교사 증원수는 6명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장애인 차별 심화시키고 있다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년 전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법으로써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에서 국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게 입법화되어 있는 소의계층과 소수자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오며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발의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공동투쟁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의 모든 노력과 자

기 결정권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또한 열린우리당도 지난 선거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했는데도 장차법에 관하여 진행되는 그들의 무관심과 기만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때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치장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날 투쟁발언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한국농아인협회 김이호 부회장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공동투쟁단은 전국투쟁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도 여의도에서부터 열린우리당 당사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출처 : 에이블 뉴스, 복지연합뉴스